UPASIKA PRAISED CONTENTS

02 발행인 칼럼 | 김선옥
귀의삼보하옵고

04 불교와 여성 | 김영란
미카엘라 하스의 『다키니 파워』

06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이영희
행복한절 은산스님

12 108인 기획 인터뷰 | 조정숙
불교르네상스의 꿈 불교여성광장건립을 발원하며. 김애주 고문

14 문화살롱 | 최혜경
간편 약식으로 풍성한 가을을 맛보세요

16 현장스케치 | 김진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 출간기념회 후기

20 특별활동 보고 | 조정숙
불교여성광장 건립 입재식

23 사무국 소식

26 산하기관 센터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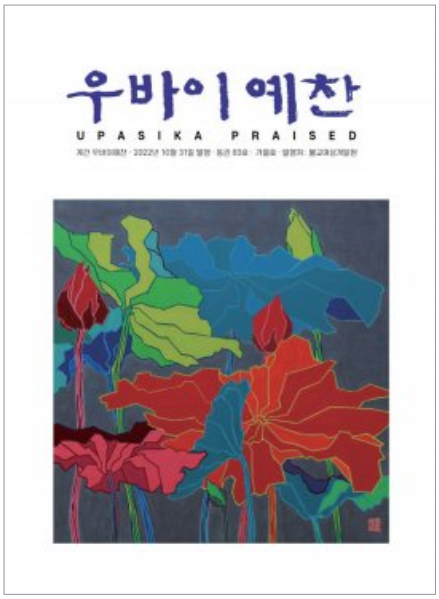
29 회원 동정

31 재정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2년83호

[발행인] 김선옥 [발행일] 2022년10월31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김원숙,이영희,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스튜디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빌딩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작품설명]
●작품명 : **무제**
●재료 : **아크릴, 한지**
●규격 : **46cm * 55cm**
●작가 : **일훈**

[작가프로필]
광주 자운사 거주
운문사 전통강원졸업
경주동국대 한국화전공

귀의삼보하옵고

한더위가 물러날 기미 없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조계사 국화 향기가 완연한 가을, 朱子의 勸學文 중 실감나는 글귀가 있어 옮겨 봅니다.

미각지당춘초몽未覺池塘春草夢
계전오엽이추성階前梧葉已秋聲*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간 불교여성개발원은 무서리와 무더위와 늦여름의 태풍의 시련까지 꿋꿋하게 견디며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잘 완수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쓰기'는 23분이 참여해 20권의 자서전을 출간함으로써 인생의 자서전을 한 권씩 가지는 보람찬 활동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성 평등 기금사업(양성평등) '알콩달콩-도란도란 가족명상'은 지난 9월 집중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는 "온전히 '나'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가족명상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매월 1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하는 지혜아카데미는 계미향 교수의 「고려 충선왕의 생애와 불교」, 어순아교수의 「『어린 왕자』와 나누는 마음여행」, 배영숙 원장님의 「엘레미네이션 elimination 다이어트」 등을 진행하여 여러 회원이 참여하고 호응이 컸습니다.

*봄풀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계단 앞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낸다.

앞으로도 월 1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장 괄목할만한 일은 올해가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2주년이고 광장 건립 발원한 지 11년째, 명실공히 우리의 광장 건립의 초석을 닦게 된 일입니다.
종로구 청운동 103번지에 불교르네상스의 꿈을 실현할 건물을 매입하고 9월 29일 광장 건립을 위한 모연 입재식을 마쳤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그동안 자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불교여성단체로 활동을 두루 해오는 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한국 여성불자의 교육, 수행, 봉사의 산실이 될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발원하고 2012년에 교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 불자들이 세계인과 더불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터전으로 광장건립을 위해 두 차례 모연 (2011년, 2017년)을 부단히 노력하여 초석을 닦고 드디어 청운동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3차 모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사는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재가여성 불자들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고 보살행을 결집하여 불교의 신기원을 이루게 될 대역사입니다. 이제 불교여성개발원은 나아가 여성불자들의 신심을 더욱 고취하고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로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불교여성개발원 광장' 마련이 여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큰 마음 내어서 함께 동참하실 보시행에 초청합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부촉을 받드는 인연공덕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깨달음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죄절하지 않고 더욱 꿋꿋하게 뚜벅뚜벅 정진하여 대승보살의 지혜와 자비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여여부동하고 견고한 불교여성개발원이 되겠습니다.

미카엘라 하스의 『다키니 파워』

'다키니Dakini'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여성의 화신을 뜻한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뗀진 빨모스님은 "여성이 지닌 가장 특별한 자질은 예리함, 즉 명료함"이라고 하면서 다키니의 본질을 직감력이라고 하였다. 칸도 린뽀체는 "전통적으로 다키니는 뛰어난 여성 수행자, 위대한 스승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성별을 초월하는 깨달은 여성의 본질인 비이원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다키니 파워』는 '아주 예리하고, 총명한 지혜의 본성'의 삶을 살아간 12명의 여성 스승들, 다키니들에 대한 전기이다.

티벳불교에는 관세음보살의 여성성인 따라보살과 티벳불교의 원조인 파드마삼바바의 수행동반자 예세초갤, 그리고 몸의 집착을 끊어내고자 대부분의 티벳불자들이 수행한다는 '쬐'를 만든 마찍 랍된까지 수많은 여성 성취자가 있다. 비록 티벳의 성차별적인 문화와 후대의 종파 지도자들이 추가한 것으로 여겨지는 차별적인 계율과 교육제도, 빈곤과 같은 악조건이 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수행한 수많은 여성 수행자가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왜 여성으로서 수행의 길을 갈 때 그들을 예시로 삼지 않을까, 뗀진 빨모스님은 이렇게 탄식했다. "그들은 대담한 용기로 오지로, 산 속의 동굴로 들어가 수행하고 또 수행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도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전기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여성의 일대기를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전에는 성취를 이룬 여성이 많았다고 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자 여성 운동인 샤카디타대회The Sakyadhita Conferences를 개최하는 등 비구니의 교육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복지, 인식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깔마 렉셰 쪼모, 숭산 스님과 함께 십수년간 공부했고, 틱낫한 스님에게서 다르마 전승을 받고 행동으로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조안 로시 할리팩스를 비롯해서 티벳을 떠나 망명하여 다르마를 전하고 있는 칸도 린포체, 닥몰라 샤까, 칸도 쩨링 최돈 그리고 서구여성으로서 티벳불교에 귀의한 쌍게 칸도, 엘리자베스 매티스 남겔, 착둡 카도, 출팀 알리온 등은 위대한 다키니의 환생자, 깨달은 수행자로서 불교 강연과 가르침 전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와 미래의 여성 수행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수행의 롤모델로서 영감을 준다. 남성 수행자가 아닌 '여성 수행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고 '여성 달라이 라마', '영향력 있는 다르마 여왕'과 같은 여성 성자의 표본을 제시한다.

이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붓다의 평등한 가르침을 토대로, 오랜 시간 묵인해 온 종교 안에서의 불평등과 억압적 성차별에 반기를 들고, 날카롭고도 깊은 통찰력으로 이를 단호하게 짚어내고 극복하였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여성을 위해 선택'한 최선의 용기는 차별없는 '공존', '상생'의 가치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12명의 다키니 중 마지막 장은 칸도쩨링 최돈인데 저자는 이 책을 집필 중에 세상을 떠난 그녀에게 고별 헌정하였다. 그녀는 특히 다른 스승들처럼 법석에 앉아 다르마를 전하지 않았으나 모든 스승들은 그녀에게 존경의 예를 갖추었다. 한 승려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하였다.

"그녀의 존재로 인해 깨달음에 대한 모든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겸손하고 잘난 체하지 않은 점은 평범한 단순함에 대해 깊은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는 위대한 마스터가 높은 성좌에 앉아 지혜로운 말씀을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녀는 그런 개념들과 반대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쳤을 뿐입니다." 불교 수행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성에 대한 것임을 몸소 보여준 그녀를 통해 명상과 수행의 대중화시대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고통도 걸러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대면하면서 '직접 행동하는 자비'의 실천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12명의 여성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키니 파워』는 여성적 영성인 '다키니' 즉 '깨달은 지혜'와 '자비'가 진정한 불교의 본질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며, 차별없는 진정한 연대와 공존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할 것이다.

행복한절 은산스님

맑은 하늘이 드높았던 9월 중순, 완연한 가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름도 아닌 계절에 거창의 행복한 절을 찾았다.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감토산 한 자락 경사면을 따라 자리잡은 '행복한 절'과 '행복한 마을(사단법인)'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맑은 풍광 속에 그냥 그곳에 오롯이 있었다. 세상을 벗어난 듯이 또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듯이. 취재 오기 전부터 잘 운영되고 있는 '불교사부대중공동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인 줄 아는 세상에서 공동체 모두가 무소유를 실천하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안고 찾아갔다. 마을의 중간쯤에 위치한 채식당 '베지나랑'에서 행복한 절 주지이자 행복한 마을 촌장인 은산(隱山)스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다. 편안한 모습과 조용한 몸가짐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 서울이 아닌 지역에 모든 면면이 세련되고 멋진 식당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채식당을 찾아온다는 것도 놀라웠다. 취재하는 그날 점심도 북적이는 것은 아니지만 식당은 어느새 만석이었다. 넓은 창 아래 펼쳐진 경사지 비탈이 한눈에 들어왔고 자연스런 채광이 식당 안까지 골고루 잘 비쳐 환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었다. 테이블 배치며 식당 소품들도 은근한 멋이 있었고 특히 벽 중앙에 '당신께 공양을 올립니다'라는 문구 역시 범상치 않은 울림을 주었다. 식당을 찾아온, 각자 삶의 무게에 조금은 지쳤을 모든 이에게 주는 위로 메시지이자 식당 운영철학이 함께 느껴졌다. 또 글귀에 어울리는 캘리그래피와 매립식 조명까지. 무엇하나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이 느껴져 정말 정성스런 공양을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다.

오감이 만족스러운 채식코스 점심을 마치고 스님과 다실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우선 자본주의와 물신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무소유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여쭈었다. 스님은 우화 하나를 들려주었다.

경상남도 거창에 소재한 행복한절 전경

"옛날에 한 주인과 여러 노예가 살던 세상이 있었어요. 물론 세상은 노예의 노동에 의해 굴러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주인은 자신이 노예들의 경원의 대상이자 찬탈의 대상일 뿐이라는 생각에, 노예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하지만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한다면 화폐를 주겠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화폐를 얻겠다는 생각에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하던 일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더욱 더 매달려 열심히 합니다. 이렇듯 화폐는 원래 아무 의미도 없었고 많든 적든 단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입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의 굵직한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에서 세금으로 은행을 살리고자 합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왜 자신들이 낸 세금이 방만한 경영을 한 유책있는 은행들을 살리는데 쓰이는가 반발하자, 연준회장은 시민들의 세금이 아니고 새로 찍어낸 화폐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화폐의 무의미를 깨닫고 블록체인기반 화폐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이상 국가 중앙은행이 통화발행권과 유통권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등장한 암호화폐와 독자적인 사이버화폐가 디지털화폐의 발권과 전환에 점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제 종이와 금속화폐는 말 그대로 종이조각, 금속조각이 되고 데이터로 기록된 화폐로 시장의 전환이 이루어질 상황에 놓였지만 아직도 인류는 '많고 적음'이 원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 가상화폐마

베지나랑 레스토랑

저 투기에 써버리고 맙니다. 아직 인류 의식이 전반적으로 깨어나 있지 못한 것이죠. 이런 의식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에서는 인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동/식물/자연) 착취해야만 부자가 됩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내려면 더욱 일하도록 몰아붙여야 하고, 더욱 많이 생산하고, 더욱 많이 팔아야 하는, 지속 불가능한 악순환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은 죄악일 수 있습니다. 소유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주인이 되고, 또 주인의식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즉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 전체를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따로 각자 소유하지 않고 '내 것'이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공동체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니 더 풍부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급여의 크고 작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 년 차 급여나 십 년 차 급여가 같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탐방하여 모델로 삼고 있는 태국의 아속(Asoke)공동체는 '미스터 클린'으로 유명한 전 방콕시장, 잠롱 스리무앙이 아속 출신이고 그의 멘토가 바로 아속의 창시자, 포티락 스님입니다. 외견으로는 빈곤해 보이지만 아속공동체 내에 유치원부터 종합대학까지 또 병원에서 마켓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 부족함 없이 풍족히 생활할 수 있고 내 것이라는 마음의 욕망조차 무의미한 곳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자급자족의 공동체적 삶이 각자 소유하는 삶보다 훨씬 풍요롭고 평화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속(Asoke)은 '고통이 없는 환희'라는 의미입니다. 아속의 아이들은 내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넓은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뭔가의 억압이나 결핍에서 생겨나는데,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자연스레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과 이상을 공유하면서 행복한 마을과 행복한 절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아무리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동체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 행복한 마을에서는 어쩌면 초기 불교의 모습 그대로 무소유의 수행자인 스님은 수행과 법을 펴는데 전념하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 재가불자는 삼보를 외호하며 불사와 모든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동체의 자급자족을 위해 마을의 재가불자들은 재원을 만들기 위한 일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을의 대표적인 기업, 채식당 '베지나랑'이다. 베지나랑은 공동체 속에서 공양간 역할과 동시에 수익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벌어들인 재원으로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다. 최근에는 사업을 확장해 단백질 함량을 높인 두부를 개발하여 두부공장도 운영하고 '채이장'이라는 즉석요리식품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 모두를 공동체의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하는 사업인지라 정성스럽고 깨끗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듯이 '베지나랑'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거창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공양간(반찬 배송)이 더 있다. 그 밖에도 '리트리트홈(명상안거를 위한 집)'이라는 템플스테이와 비슷한 숙박프로그램도 있다. 이에 더해 입주조건이 있는지 여쭈어보니, "따로 정한 입주 조건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공동체 기본 생활 방식에 잘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스터디 모임에서 공동체의 판단 기준점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야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질적 입주 조건은 살던 데서 이사한다는 개념만으로 충분합니다."

질문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처음에 불교공동체를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여쭈었다. 어떤 한 가지 계기라기보다 광범위하게 여러 요소가 작용해서 결국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먼저 은사인 전 종정 혜암 스님을 떠올렸다. 큰 스님은 법명 그대로 도를 이룰 때까지 산에서 내려가지 않을 결심이었던 행자에게 "저잣거리에서도 마음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대중을 떠나서 도를 이룰 수 없다."며 서울로 갈 것을 권하셨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선학과에 입학한 후 이왕에 도심에 있게 된 이상 저잣거리로 깊게 뛰어들어 마음의 흔적을 없게 해 보자는 마음으로 서울 구로 관음포교원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때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불교와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불교공동체를 꿈꾸게 되었는데, 일상의 대중들에게 알고 있던 부처님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 더욱 그들의 삶 속에 동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한 발짝 뒤에 서서는 그들을 깨워낼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나를 조금이라도 남겨 두고서는, 버리고 또 버리지 못한다면, 남을 일깨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신뢰할 만한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때 중재자는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는 완전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대중이 그의 사심 없음과 중재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즉 공동체를 이끌려면 무소유의 지혜로운 출가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은 다름 아닌 이해(利害)를 벗어난 지혜로운 어른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원래 부처라고 하셨는데 공동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경계를 발견하고 서로 도와가며 놓아버린 후 화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원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을 확장시키고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첫 단추는 서울 관음포교원 시절, 인연이 된 그 청소년들과 함께 수행공동체를 거창에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의 길을 공부하다 보니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처가 없고서는 각자도생의 수행과 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 행복의 배경으로 만든 곳이 바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인 것이다.

무소유의 삶은 힘들다는 생각 역시 많고 적음의 실체가 없음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겼듯이 공동체에서 살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지자 무소유로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도리어 당당하고 자유로워지며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넉넉함을 느끼고 경계를 버리고 나니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한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의식이 깨어나고 확장되면 많고 적음의 노예의 삶을 끝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마음의 안심이 필요하다. 즉 사람들에게 그냥 내려놓으라고 해서 놓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구족되어 있는 안심에 의지해서

저절로 내려놓게 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내 마음에 있던 안심을 써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을 안 쓰고 다른 착각된 마음을 쓰니, 안 가지면 못 살 것 같고 무소유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마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자 견해를 일으켰음을 알고 있어서, '일상에서 내 견해 없음의 자리'를 그냥 다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견해라는 건 실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견해를 내려놓음으로써 저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깨어나라, 특별한 곳에서 찾지 마라.'라고 가르칩니다. 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심의 마음을 일상에서 일깨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선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는 식으로는 참나를 알 수가 없지요. 앞뒤가 뒤바뀐 생각이고 원래 당초의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자본주의의 실체를 알고 보니 원래 많고 적음이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듯이 내 견해 역시 실상과 맞지 않음을 자꾸 배우면서 견해를 자연스레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동체의 화목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더불어 사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는 길을 만들며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밝고 의로운 이들이 있어 더불어 넉넉해지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거창은 은산스님과 행복한 마을 주민들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 참고자료
- 조현,불교평론http://www.budreview.com
- 불광미디어http://www.bulkwang.co.kr
- 불교신문
- 2020.07.10 BTN 불교라디오 울림 「울림 네트워크」
BTN불교라디오btnnews@btn.co.kr

불교르네상스의 꿈 불교여성광장건립을 발원하며. 김애주 고문

교수님 반갑습니다. 언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합니다.

불교 인연은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아버님이 집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을 평생 하셨어요. 취미로 붓글씨를 쓰셨는데 반야심경을 주로 쓰셨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동국대 영문학과 교수로 올해까지 봉직하시지요? 내년 2월이면 퇴임인데 퇴임을 앞둔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교인 동국대에 재직하고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동국대 인연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동국대가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6대 원장, (사)지혜로운여성 제 3대 이사장(2011~2012)을 역임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신 사업이 무엇이셨는지요?

무엇보다도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발원하고, 모금운동을 하고,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불교여성개발원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구심점이 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고, 그것을 추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재임중에 원장을 맡으셔서 무척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합심해서 그다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원장 재임 2년간 써야 할 논문 등이 밀려 원장직이 끝나고 2년간은 그걸 메꾸느라 좀 바빴지요.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의 조직화·전문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불교여성개발원은 다른 불교 단체와 달리 여성 불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엘리트 여성 불자들을 배출하고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젊은 여성들이 불교에 매료될 수 있는 21세기형 전법이 펼쳐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교는 여전히 이웃종교에 비해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인지 사회적 연대가 많이 약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대승보살의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귀일심원歸一心源을 핵심으로 삼는 불교가 공동체의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불교의 강점이므로 개별화되고 개체화되는 미래사회에는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귀일심원의 자연스런 귀결은 요익중생饒益衆生이므로 사회공헌에 대한 의식적 활동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수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아침에 1시간 가량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주는 에너지의 집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창립 22년 만에 재가여성불자가 주축이 되어 추진중인 여성광장건립 불사의 의미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해 모연 독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여성광장은 그야말로 많은 여성불자들이 다양한 일을 하며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불교를 바탕으로 사람을 키우고, 문화를 만들고, 이웃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려고 발심하는 여성불자들을 위해서 이 세대가 반드시 마음을 모아야 할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십시일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편 약식으로 풍성한 가을을 맛보세요

약식은 예로부터 혼례나 제례 등 대사(大事) 때 편과 함께 상차림에 올렸던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입니다.
약식의 유래는 신라 소지왕이 대보름에 경주 남산을 행차하던 중 까마귀가 떨어뜨린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에는 왕에게 역모가 있다고 알려주는 글이 씌어 있었고 까마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소지왕은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검은색 띤 밥을 지어 정월 대보름에 까마귀에게 먹게 한(『삼국유사』)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찹쌀과 햇밤과 대추로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실패 없는 약식 만들기를 함께 해보시길!

요즈음은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널리 알려졌으나 중탕으로 찐 약식과는 맛과 식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찹쌀의 건조상태나 물의 양에 따라 질거나 되게 될 염려가 없고 카라멜 등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과 정성만으로 조금씩도 집에서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외출하지 않는 날, 슬로푸드의 완성을 즐겨 보시는 것도 기쁨입니다.
처음은 서툴러도 몇 번이면 요령이 생깁니다. 간단한 재료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용도가 다양한 약식에 도전하시어 가족과 이웃에 정성을 선물해보시면 어떨까요?

재료

찹쌀 1kg을 4~5시간 불림
대추(중간20개) 황설탕, 꿀, 참기름, 진간장
*대추 씨는 물 한 공기 정도 붓고 푹 끓여서 5분의 1 정도로 농축시켜 씨는 빼고 찹쌀 쪄서 버무릴 때 같이 섞는다.

만들기

1. 불린 찹쌀을 찜통에 보자기를 깔고 찐다.(30분 정도)

2. 찐 찹쌀을 중탕 그릇에 붓고 모든 재료를 넣어 버무린다.

3. 중탕 그릇이 들어갈 만한 큰 그릇에 물을 반쯤 넣고(끓어 넘쳐서 중탕 그릇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됨)
4. 냄비 밑에 스텐숫가락을 몇 개 깔고(냄비와 중탕 그릇이 닿으면 눌을 수가 있으므로 차단효과)
5. 중탕 그릇을 넣고 뚜껑을 덮고 끓인다.

6. 소리가 줄어들면 물을 보충해가며(보충할 때 중탕 그릇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한다.)

7. 2시간 정도 찐 후 중탕 그릇을 꺼내서 위아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뒤적여 다시 큰 냄비에 물을 부어가며 계속 찌면 흩어졌던 찹쌀이 촉촉하면서 갈색빛 먹음직스러운 약식이 완성된다.

나누어 먹기 좋게 예쁘게 담는다.

요약하면,
불린 찹쌀을 찐다./재료를 모두 혼합한다./중탕 그릇에 넣는다./큰 냄비에 중탕 그릇을 넣고 물을 부어가며 찐다./4~5시간 후 완성

TIP

남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을 때는 냄비에 물을 붓고 작은 용기에 넣어 만들 때처럼 중탕한다.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 출간기념회 후기

올 봄 불교여성개발원에서 계획하고 행전안전부에서 후원한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 경우는 34년간 다니던 직장 퇴임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자서전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 나는 세 자매 중의 둘째 딸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어도 우리 세 자매는 모이기만 하면 엄마 얘기를 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엄마에 관한 글을 쓰기로 의기투합하여 원고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그러나 자서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모를뿐더러 글을 썼던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책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불교여성개발원의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엄마 책을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첫날 참석해보니 90세 되신 어르신 포함 20명이 함께 하였다.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과 거사님 몇 분도 함께 하였다. 첫 주는 팀별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90세 되신 분이 나랑 같은 팀이었다. 따님이 모시고 다니며 어머니의 글쓰기를 도와 드린다 하였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자서전을 쓰러 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생을 담을 예정이니 그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매번 코칭 작가님들의 강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글을 쓰게 되었고, 다음 주에는 쓴 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서전 쓰는 법을 배워나갔다. 참여한 분들이 글을 발표할 때마다 그 분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자서전을 함께 쓴다는 것이 순전히

글쓰는 일 이상의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내 경우는 엄마 글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내 자서전을 연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에 써놨던 엄마 글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자서전도 틀이 잡혀가고 있었다. 글 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나에게 코칭 작가님들의 꼼꼼한 가르침이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코칭 기간이 끝나고 한 달 가까이 혼자 글을 썼다. 두 달간의 코칭 덕분인지 비교적 쉽게 글을 쓸 수 있었다. 참 감사한 일이다.

자서전은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시작하여 퇴임 후까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적었다. 다 완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글을 읽어보았다. 놀랍게도 내 삶의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삶의 굴곡이 한눈에 보이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눈에 들어왔다. 글에 어울리는 사진을 찾기 위하여 먼지가 쌓여 있던 오래된 사진첩을 열 번 이상 훑었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추억을 생각해내고는 그 사진에 맞는 글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는 일은 귀찮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구석구석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어 좋았다.

처음 자서전을 쓰기 시작할 때는 엄마의 책을 쓰기 위한 연습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게다가 정해진 기간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미완성인 상태로 책을 내어야 했기 때문에 자서전에 대

한 기대감이 없었다. 그런데 인쇄된 작품을 수정하느라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어릴 적 욕심 많던 시절, 30대 내가 완전히 성숙했다고 믿으며 거침없었던 시절, 40-50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일에만 몰두하던 시절, 그리고 60대 더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나이로 여유를 찾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된 시절 등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70세가 된 지금은? 이상한 일이다. 30대의 당차고 확신에 찼던 내 자신은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알지 못함은 기본적으로 무지에 정직한 것이라고,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은 언제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접점에서 생겨난다'고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70이 된 지금에야 내가 삶에 대하여 겸손해지려는 것일까? 자서전은 정말 시도해 볼 만한 작업이다.

드디어 9월 3일 출판기념회 날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참여자들이지만, 서로의 삶을 글로써 공유해서인지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한 분 한 분 책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행사에 비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선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로, 주부로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크게 부각되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묵묵히 힘든 삶을 겪어 오신 분들이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에게 자서전 발간을 축하받는 자리는 마치 살아오신 삶을 축하받는 자리처럼 느껴졌다. '꿈틀'의 '모든 삶은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실감났다.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90세 되신 참여자 분이 직접 쓰신 시를 낭독할 때였다. 그분 따님 말씀이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자서전을 쓴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삶이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원한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가치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나,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묵묵히 어려움을 감내해온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을 소중히 담아내고 귀중하게 여기는 과정을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절대평등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고, 불교여성개발원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자서전을 안 써 본 분들에게 꼭 한 번씩 자서전을 써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누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자서전이 아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선물, 내 인생의 자서전'을 기획해 준 불교여성개발원의 탁월한 기획력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을 기대한다.

불교여성광장 건립 입재식

본원 창립 22년이 다가오고 있다. 2011년 4월에 지금 본원이 세들어 있는 건물 바로 옆 조계사 불교대학 4층에서 10년 동안 매월 전기세 내는 정도로 사용하던 중 조계사가 필요하다며 이주 통보를 받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 포교원에 사정을 말하니, "공간마련은 여성개발원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 는 한마디만 던져 본원 회원 모두는 절망하고 있었다. 2011년 1월에 김애주 4대 원장이 취임하여 5월 30일 임원 간담회를 열고 불교여성광장건립 불사를 제안하고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8월 30일 입재식, 그리고 11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불교여성광장건립을 발원하고 「불교르네상스의 꿈」 이기향의 예술 의상쇼와 「춤추는 단청」 패션쇼를 개최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2년 10월 현재의 수송빌딩 1층을 계약하고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2013년 4월 9일에 이전하였다.

2014년 정경연 원장의 「마음모아 함께」 바자 수익금을 합쳐 1억 원, 2017년 10월에 노숙령 원장의 「불교르네상스의 꿈II」를 통해 4억여 원을 모금하며 광장건립의 꿈을 키워갔다.

제안 후, 11년이 되는 시점인 올 7월 말에 전세 든 수송빌딩 주인이 건물을 매각하여 본원은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회원들은 이 참에 불교여성광장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을 하기로 결의한다. 여세를 몰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매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품을 팔아 청운동에 건물(대지 53평 싯가 21억 원)을 찾아낸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물 구입을 논의하고 건물을 사기로 결의한다. 속속 본원 구입 절차를 거쳐 건물을 계약하고 9월 29일 불교여성광장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입재식을 가졌다.

상임추진위원장에 김선옥 원장과 전임원장이신 이인자, 김인숙, 이은영, 김애주, 정경연, 박순, 노숙령, 김외숙님을 추대한다.

상임 추진위원은 본원 부원장, 이사 그리고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포함, 두 기관의 감사를 추대했다.

입재식에는 인과선원 정덕스님을 비롯하여 본원 전임원장 포함 60여 명이 참석하여 큰 불사를 앞두고 마음을 모아냈다.

특히 최혜경 수익사업단장은 본원 창립 이래 우리 공간 마련을 발원하는 역사적인 입재식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정을 나누기 위해 밤새워 연잎밥을 싸고, 햇김치를 담그고, 콩나물국을 끓여 건강한 공양을 제공하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인과선원 정덕스님은 축사를 통해 전날 꾼 꿈을 말하며 "개발원 사무실 조 국장이 구순 기념으로 발간한 내 책(『백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라』)을

보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해 와서, 내가 며칠 내로 그려준다고 말하는 중에 큰 코끼리가 코로 감을 많이 따서 바구니에 담는 꿈이었다. 사슴과 거북이도 꿈에 등장하였다.”고 하시며 개발원 광장건립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니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잘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감을 따는 꿈 이야기를 듣고 감색으로 코디를 하고 오신 고문님들이 박수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리영자 고문은 본원이 창립 정신에 맞게 단체 정체성을 지키려다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광장건립을 마무리 지으려는 오늘 이 자리가 참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감사하게도 두 분의 고문이 각각 1천만 원씩을 약정했다,

기부릴레이 시간에는 김인숙 고문이 1억 원 약정 발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이순이 3차 108인을 비롯해 참석한 108인회 차수장들이 결기를 모아 약정을 하고, 또한 입재식 하기도 전에 선림사 주지스님께서 1천만 원 후원해 주어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실행위원회 양경윤, 이정호, 원유자, 정대련, 최혜경, 형난옥, 이영미, 남동현, 박종덕, 안영 위원들의 주체적 역할 참여 덕분으로 광장건립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영미 이사는 입재식을 맞아 광장건립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위즈덤합창단의 힘있는 음성공양으로 불교여성광장건립이라는 대장정의 불사가 시작되었다. 본원과 인연있는 한분 한분 정성 어린 참여로 앞으로 펼쳐질 광장이 한국 불교사에 역사적인 공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사무국 소식

○정기운영위원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사업을 총괄하는 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8월은 사무실 건물 매각에 따라 이전을 결정하고 불교여성광장 건립과 추석맞이 온라인 선물 판매를 결의하였고, 9월은 입재식 개최와 모연, 10월은 여성불자 보살계 수계식을 결의하였다.

○불교여성광장 건립 실행위원회 회의

8월 운영위원회에서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실행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고문(전임원장단) 회동

7월 22일 불교여성개발원 김선옥 원장과 전임 원장단은 김인숙 전 원장의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축하 모임을 가졌다.

광화문 진아춘에서 오찬 후 재단 이사장실로 이동하여 불교여성개발원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축하 방문

8월 15일 불교여성개발원 김선옥 원장과 고문, 임원 10명은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조직위원장 조은수) 축하 리셉션에 참석하여 조직위원장 조은수 업무감사를 격려하며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참석한 일행은 안국선원 수불스님, 전 국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우바이예찬 편집회의

8월 24일 오후 2시 지혜실에서 우바이예찬 편집회의를 가졌다. 필진 인물사진은 외부인들만 신기로 하였다.

○법성게 사경 100일 기도 입재

8월 25 ~ 26일 김선옥 원장과 회원 6명은 반야심경 100일 기도 회향을 위해 지리산 선림사를 참배하여 100일 동안 정성들여 사경한 사경책을 소지 공양 올렸다. 회향 후 3차 100일 기도는 9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법성게 사경기도 100일 기도를 입재하기로 하고 사경집 100권을 보우법사께서 보시하였다. 현재 법성게 사경기도는 38명이 동참하고 있다.

○행안부 공모사업 자서전 출간기념회

9월 3일 오후 2시 종로 법륜사 1층 대회의실에서 「나를 위한 선물 내인생의 자서전쓰기」출판기념회를 하였다. 전영숙 전 불교여성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시작된 출판기념식에는 자서전 쓰기에 참여한 20명과 출간을 축하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였다. 조명숙 8차 108인의 따님 이은용은 색소폰 연주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덕 고문 스님은 화환을 보내고 참석하였다.

○서울시 성평등 공모사업

9월 24, 25일 이틀 동안 천태종 관문사에서 양성평등 가족 명상 알콩달콩-도란도란 템플스테이를 개최하였다.

공모사업 수료자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가족명상 대합창 프로그램과 양평성등 가족 이해를 위한 가족명상과 만다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불교여성광장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입재식

9월 29일 오후 2시 불교여성광장 건립 제3차 추진위원회 발족식과 입재식을 지혜실에서 개최하였다. 정덕 고문스님과 전임원장, 회원 60명이 참석하여 여성불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여성광장을 건립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호두따기 체험

9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 김선옥 원장과 회원 6인은 노인

자 노인이 회원이 경작하는 경북 예천 용두리 호두농장에서 호두따기 체험을 하였다.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유기농인증을 받은 예천 용두리 호두가 올해 풍작이라서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구매 호두 가격은 1kg 3만원(2킬로그램까지 택배비 별도)으로 판매금의 일부를 불교여성개발원 광장 건립에 후원한다. 문의 02-722-2101 / 노인자 010-9449-6092

○수계법회

10월 29일 자비실에서 회원과 여성불자들은 불교여성개발원 고문 혜총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삼귀의, 오계 수계법회를 개최하였다.

혜총스님은 수계법회 법문을 통해 진표율사_자운스님_혜총스님에게 이어지는 정통 율사에게 받는 수계공덕을 강조하며 부처 되는 신행생활을 강조했다.

○호거산 운문사 역사문화관 기공식 참석과 성파종정스님 친견

10월 30일 김선옥 원장과 이인자 초대원장, 김외숙 전원장, 조은수업무감사 , 조정숙 국장은 청도 운문사 역사문화관 기공식에 참석하였으며, 김선옥 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차담시간에 명성 회주스님께서 쓰신 공적비 붓글씨를 관람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의 현안인 광장건립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운문사 역사문화관 건립 모연에 동참하였다. 이어 통도사 정변전을 찾아 성파종정스님을 친견하였다.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회장 양경윤, 5차 108인)

여성불자108인회는 9월 15일, 10월 13일 임원회의(차수장과 각 차수 집행부)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본원의 불교여성광장 건립의 현안을 회원 전체에게 홍보하고 많은 분이 동참하도록 108인회 임원들이 적극 나서기로 하고, 11월에 미술작품과 기증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광장건립 목표 달성에 함께하기로 하였다.

◯ 5차 108인회(차수장 강미중)

10월 15일 5차 108인회 강미중 차수장과 회원 6인은 가을 나들이로 경기도 광주 영은사와 경기 나전칠기 김길수 명장님 작품 감상과 구입, 그리고 자택을 개방하여 이웃분들과 주 1회 명상을 지도하시는 임순덕 회원 댁을 다녀왔다.
특히 고(故) 방혜자 회원이 생전 작품 활동을 하던 영은미술관 방혜자 전시관을 참배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양경윤 회장은 후원금을, 강미중 차수장은 후원금과 간식 꾸러미를, 여주의 김옥희 회원은 과일과 음료를, 노인자 회원은 소금빵 보시를, 임순덕 회원은 호박과 호박잎 그리고 저녁공양을 제공했다,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빛나는 가을 나들이였다.

◯ 6차 108인회(차수장 남동현)

10월 19일 6차 108인회 남동현 차수장과 회원들은 성북동 길상사와 돌박물관, 그리고 수월암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강영자 회원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성북동 수월암에서 점심 공양을 하고 돌박물관에 들러 다양한 돌을 관람하였다. 정대련 회원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이스크림 후원을, 조경숙님은 공양을 후원했다,

◯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윤덕심, 9차 108인)

매월 넷째 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불교반 법회를 윤덕심 센터장이 이어가고 있다. 월 1회 함께해 줄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를 모집한다.

◯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박원자, 5차 108인)

9월 6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김홍근 교수와 「깨달음과 마음치유」강좌를 개강하였다. 강좌는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수강생은 80명이다.

◯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노인자, 5차 108인)

8월 21일 다문화법회를 서대문 백련사 천년고찰에서 했다.법문을 듣고 점심공양 후 도광스님과 경내 무량수전을 비롯해 약사전, 명부전, 관음전 등을 돌아보며 19세기에 조성된 괘불과 여러 탱화에 대한 설명을 관심있게 들었다.과일과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스님과의 대화를 가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재, 8차 108인)

펜데믹 이후 침체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등록기관 심화과정 상담사 교육을 온라인 수강하였다.

◯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 8차 108인)

9월 3일 법륜사에서 행안부 공익사업 자서전 출간기념회와 29일 불교여성광장 건립 입재식에 음성공양을 올려 행사가 더욱 빛났다. 매주 화요일 1시 지혜실에서 김옥경 단원의 지도로 라인댄스를 하고 있고, 3시에 김양희 지휘자의 지도로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단원 신청은 본원 사무국에 할 수 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 지혜아카데미(제4기)

7월 15일부터 108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로 나누는 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혜아카데미 4기를 개강하였다.
1강은 계미향(8차 108인) 회원이 저서 『고려 충선왕의 생애와 불교』, 2강은 어순아(9차 108인) 회원이 『어린 왕자』 나누는 마음 여행, 3강은 배명숙(10차 108인)수서그린나츄라 원장이 「엘레미네이션 다이어트」에 대해 강의하였다.
4강은 이지원(9차 108인)센터장이 『배려, 그놈의 배려』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였다.

◯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진, 2차 108인)

11월 25일 본원 창립기념식 식전행사로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생활에 적용 확산도록 반드시 필요한 불교의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불교여성개발원 수익사업단(단장 최혜경, 2차 108인)

불교여성개발원이 포교원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수익사업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전액 불교여성광장건립에 후원하고 있다. 현재는 유기농 재료로만 엄선하여 만든 연잎밥을 1개 6,000원에 판매한다. 연잎밥은 선재스님의 레시피대로 만들고 있다. 이어 매년 하던대로 김장김치를 총 500kg 담궈 판매하기로 하고 공지한 지 2시간 만에 완판되었다. 1차로 250kg을 11월 20일에, 2차로 250kg을 11월 27일에 배송할 예정이다. /연잎밥 판매 문의: 최혜경 수익사업단장(010-5704-5061)

◯ 태극권 강의

노인자 이사는 5년째 본원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2시, 자비실에서 태극권을 강의한다.
태극권은 마음의 평화는 물론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데 적절한 운동으로 특히 관절이 안좋은 고령자에게 좋은 운동이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5년째 태극권(전 명칭 우슈) 강의를 봉사로 이어오고 있는 노인자 이사는 종로구 태극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태극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무국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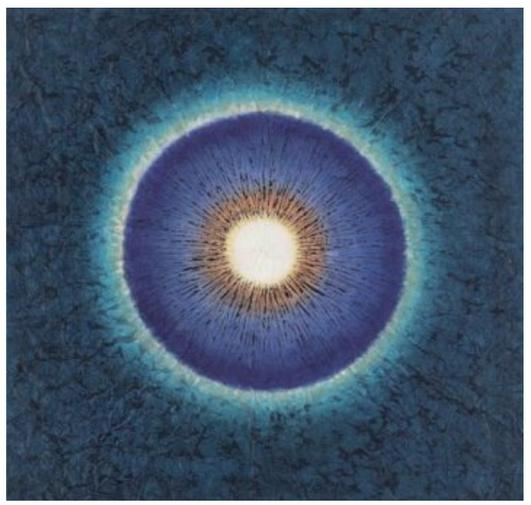
회원동정

◯ 류인숙

9월 말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실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사 등록단체에 불교여성개발원을 대표하여 상담사 체험 수기 공모에 응시하여 기념품을 수령하였다.

◯ 방혜자(3차 108인)

9월 15일 그동안 프랑스에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방혜자 회원은 프랑스 남부 아죽스 작업실에서 별세하였다. 방 화백은 생전에 불교여성개발원 바자와 한마음전 공익사업에 작품「사랑의 빛으로」를 기증해 큰 도움을 주었다. “세상에 한줌의 빛이라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던 방 화백이 다시 빛으로 돌아오시길 합장 발원 올린다.



◯ 우인순

9월 2일 민족의 명절 추석을 소년원과 한부모가족에게 초코파이 600개, 빵 300개를 선물하였다. 조계종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하여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에 사진을 출품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이용애(8차 10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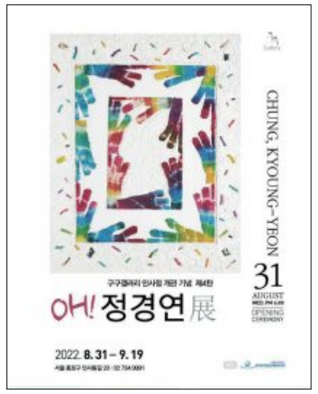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인천 도든아트하우스갤러리에서 민화전을 개최하였다. 9회째 전시회로 그동안 꾸준히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숙(7차 108인)

9월 17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무명 전몰 장병과 순국선열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사)한국보현선행에서 주관하였고 이현숙 회원이 사무총장으로 행사 전반을 기획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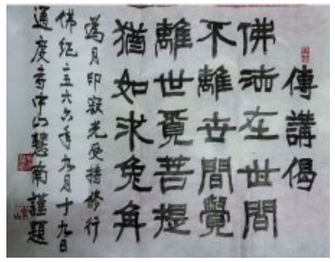
◯정경연(1차 108인)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사동 구구갤러리에서 「OH! 정경연展」을 개최하였다. 홍익대 교수 40년을 회향하고 작가의 길을 걷는 첫 개인전에 김선옥 원장 외 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정진원(7차 108인)

9월 23일부터 2023년 2월까지 봉선사에서 주최하는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저자 직강을 온라인과 대면을 겸하여 진행하고 있다. 9월에는 봉선사의 전강제자가 되어 전강식을 가졌다.



◯한주영(10차 108인)

9월 6일 불교환경연대 21주년 후원음악회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그린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환의 수레바퀴를 더욱 힘차게 굴리기 위한 행사였다.

◯황치석(10차 108인)

9월 7일~19일까지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한산, 조선수군 기획화」전시를 가졌다. 임진왜란 한산대첩 4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는 전시회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2.7.1~2022.10.2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강미중	500,000
김숙애	1,200,000
김인숙	1,200,000
노인자	600,000
손미원	1,000,000
양경윤	3,000,000
원유자	2,000,000
이정호	1,000,000
정대련	3,000,000
정진희	600,000
최혜경	300,000
형양자	850,000
황남채	300,000
황외숙	30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김미연	300,000
김연화	600,000
김형인	1,200,000
남동현	1,200,000
민경란	300,000
박원자	400,000
안기순	570,000
양현정	300,000
어순아	1,200,000
이명순	300,000
이순재	1,200,000
이영희	200,000
조미환	300,000
조희금	1,200,000

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

강미중(5차)	1,000,000
강설미(7차)	1,000,000
권지혜(7차)	1,000,000
김경랑(10차)	1,000,000
김귀순(7차)	1,000,000
김미연(10차)	1,000,000
김미원(9차)	1,000,000
김복순(2차)	1,000,000
김선옥(6차)	1,000,000
김숙자(3차)	1,000,000
김순남(10차)	1,000,000
김승목(3차)	1,000,000
김양식(1차)	1,000,000
김양식(1차)	1,000,000
김영순(3차)	1,000,000
김옥숙(10차)	1,000,000
김외숙(2차)	1,000,000
김용숙(7차)	1,000,000
김윤옥(7차)	1,000,000
김은희(4차)	1,000,000
김일명(7차)	1,000,000
김주현(8차)	1,000,000
김지영(5차)	1,00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김현지(7차)	1,000,000
남상민(1차)	1,000,000
리영자(1차)	1,000,000
문명하(5차)	1,000,000
박강자(6차)	1,000,000
박경자(5차)	1,000,000
박근연(1차)	1,000,000
박명혜(2차)	1,000,000
박정애(8차)	1,000,000
박종균(6차)	1,000,000
박찬재(9차)	1,000,000
백경임(1차)	1,000,000
사기순(4차)	1,000,000
서혜경(1차)	1,000,000
성민선(3차)	1,000,000
손미영(7차)	1,000,000
손미원(9차)	1,000,000
손인희(9차)	1,000,000
송현주(4차)	1,000,000
신용현(9차)	1,000,000
안 영(10차)	1,000,000
안애원(7차)	1,000,000
양숙자(5차)	1,000,000
양채화(7차)	1,000,000
어순아(9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오응옥(3차)	1,000,000
우인순(8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이경자(5차)	1,000,000
이계경(4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이순이(3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이원표(8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이재심(8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이주현(4차)	1,000,000
이태영(9차)	1,000,000
이현아(10차)	1,000,000
임현주(7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최해숙(4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

강명희(6차)	60,000
강옥란(7차)	30,000
강옥희(7차)	20,000
강희경(10차)	30,000
계미향(8차)	30,000
김문희(9차)	30,000
김선연(9차)	30,000
김성연(10차)	30,000
김양희(6차)	30,000
김영미(6차)	30,000
김영숙(6차)	30,000
김옥주(7차)	30,000
김은주(10차)	30,000
김청옥(7차)	30,000
남동현(6차)	30,000
남동화(3차)	30,000
노희순(3차)	15,000
문보경(6차)	30,000
박귀원(8차)	30,000
박정희(6차)	30,000
박주영(6차)	20,000
배순자(6차)	30,000
배정선(9차)	30,000
변경이(8차)	30,000
서은숙(6차)	30,000
손영신(9차)	30,000
손인애(9차)	30,000
송종옥(9차)	30,000
송주의(9차)	30,000
송혜진(8차)	30,000
신재영(6차)	30,000
안인자(9차)	30,000
양경윤(5차)	30,000
양영미(10차)	30,000
오지연(4차)	30,000
오현경(9차)	30,000
유은주(6차)	30,000
유진희(6차)	30,000
윤정선(6차)	30,000
윤효영(8차)	30,000
이기향(1차)	90,000
이수진(10차)	30,000
이영희(8차)	20,000
이은희(9차)	30,000
이지원(8차)	30,000
이현영(9차)	10,000
이혜숙(9차)	30,000
임상연(9차)	30,000
임영희(8차)	30,000
임정애(6차)	30,000
전영숙(8차)	30,000
정은희(6차)	30,000
정지원(7차)	30,000
정혜정(9차)	30,000
조경숙(6차)	30,000
조귀자(9차)	30,000
조명숙(8차)	30,000
조은수(2차)	30,000
조정숙(6차)	30,000
조현숙(10차)	30,000
주찬옥(6차)	30,000
최복란(8차)	30,000
최은희(9차_부산)	30,000
최은희(9차_제주)	30,000
최희영(7차)	30,000
한경란(9차)	30,000
한주영(10차)	30,000
한채화(9차)	30,000
한혜원(7차)	40,000
홍경희(2차)	40,000
황남채(1차)	30,000
황명자(6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황수남(9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

김남선(2차)	100,000
심미경(9차)	100,000
양정희(9차)	100,000
성영란(10차)	100,000

회원회비 (CMS)

강희출	15,000
고은자	30,000
권은랑	30,000
김보현	30,000
김순자	15,000
김어석	10,000
김연금	30,000
김연희	30,000
김영희	30,000
김정희	30,000
김주연	30,000
김학엽	15,000
김현숙	30,000
나경윤	15,000
도인희	30,000
무관스님	30,000
박말희	15,000
박문숙	30,000
박복순	15,000
박영재	30,000
박지선	30,000
박홍우	30,000
박회상	30,000
본각스님	60,000
서혜정	30,000
선문스님	30,000
손송자	10,000
송만순	60,000
신미옥	15,000
신용애	30,000
안미경	30,000
안석자	30,000
안정옥	30,000
연명순	30,000
왕민영	30,000
원유자	40,000
유명숙	30,000
유현영	40,000
윤용옥	15,000
이강희	15,000
이미선	90,000
이송화	30,000
이숙자	30,000
이승자	30,000
이영재	30,000
이윤구	30,000
이윤희	30,000
이재영	30,000
이정애	30,000
이정호	30,000
이종열	30,000
이화선	30,000
임정순	15,000
임주연	30,000
임태숙	30,000
자우스님	30,000
장길수	30,000
장영선	30,000
장윤실	30,000
전미옥	40,000
정명모	30,000
정숙인	90,000
정원일	30,000
정주현	30,000
정희자	10,000
조귀자	30,000
조문경	30,000
조여경	20,000
조우상	30,000
조재엽	180,000
조정숙	15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2.7.1~2022.10.20)

진승연 30,000
진여스님 90,000
진여스님(홍숙기) 30,000
최비안 30,000
최순진 30,000
하양자 30,000
한승우 30,000
하난영 30,000
하영숙 30,000
형난옥 30,000
혜진스님 20,000
홍점례 15,000
황선미 30,000
황유진 30,000

회원회비 (온라인)

김연희 20,000
배수아 150,000
변혁주 5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강인영 20,000
본각스님 90,000
손미원 15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강미중(5차) 3,000,000
강민정(이명순권선) 1,080,000
강성남(김선옥권선)500,000
강영자(6차) 5,000,000
계미향(8차) 90,000
권견화(6차) 200,000
김경애(최혜경권선) 1,080,000
김미연(10차) 1,080,000
김상리(9차) 300,000
김선옥 30,000,000
김애주고문 2,000,000
김여주(10차) 1,080,000
김옥숙(10차) 108,000
김인자(김선옥권선)100,000
김지연(서혜정권선)108,000
김지혜(서혜정권선)108,000
김춘곤(서혜정권선) 108,000
김형숙(정진희권선) 30,000
김형인(9차) 300,000
노숙령고문 10,000,000
노인자(5차) 1,080,000
다문화봉사단 2,000,000
류인숙(5차) 300,000
문윤정(5차) 70,000
민경란(9차) 1,080,000
박원자(5차) 1,050,000
서범준(서혜정권선)108,000
서성수(서혜정권선)108,000
서연준(서혜정권선)108,000
서진수(서혜정권선)108,000
서혜숙(서혜정권선)108,000
서혜영(서혜정권선)108,000
서혜정(회원) 108,000
선림사(보우법사) 10,000,000
성민선(3차) 1,080,000
성영란(10차) 200,000
소갑석(김선옥권선)200,000
손승영(정대련권선) 1,080,000
손연옥(정대련권선) 10,000,000
송옥순(정진희권선) 30,000
송주의(9차) 1,080,000
심영섭(서혜정권선)108,000
안기순(8차) 2,160,000
안 영(10차) 1,080,000
양경윤(5차) 1,000,000
유신숙(김선옥권선) 100,000
윤정로(9차) 3,240,000
이강석(서혜정권선)108,000
이근식(서혜정권선)108,000
이기용(서혜정권선)108,000
이명숙(7차) 1,080,000
이명순(2차) 10,000,000
이병두(전영숙권선) 1,200,000
이상윤(서혜정권선)108,000
이상화(서혜정권선) 108,000
이순이(3차) 2,160,000
이순재(8차) 100,000
이영근(5차) 1,080,000
이영이(10차) 500,000
이정아(서혜정권선)108,000
이정호(2차) 1,000,000
이태영(9차) 1,080,000
이한정(서혜정권선)108,000
이현정(모친 김상남, 김선옥 권선) 10,000,000
이혜숙(서혜정권선)108,000
이호옥(8차) 1,080,000
임순덕(5차) 3,000,000
임주연(정진희권선) 30,000
임지영(정진희권선) 30,000
장선옥(1차) 1,080,000
장정윤(김선옥권선) 200,000
전미옥(회원) 100,000
전영숙(8차) 2,160,000
정대련(6차) 10,420,000
정덕스님 2,000,000
정해일(일반) 300,000
조명숙(8차) 500,000
조미환(10차) 200,000
조은경(10차) 2,160,000
조재란(10차) 2,160,000
조희금(2차) 2,160,000
진정순(3차) 1,080,000
차원준(최비안권선) 50,000
최비안(회원) 50,000
최혜경(2차) 10,000,000
하수경(1차) 1,080,000
황남채(1차) 1,080,000
황수경(3차) 1,080,000
황외숙(고구마판매) 92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불교르네상스의꿈2)_ 약정 잔액

계미향(8차) 990,000
권은랑(회원) 1,080,000
김 진(2차) 3,000,000
김영희(9차) 3,240,000
김외숙고문 30,000,000
김옥숙(10차) 972,000
김용숙(7차) 2,160,000
김인수(4차) 1,080,000
김인숙고문 100,000,000
김형숙(정진희권선) 1,050,000
남동현(6차) 10,800,000
류인숙(5차) 780,000
민경란(9차) 9,720,000
박 순고문 10,000,000
박원자(5차) 2,000,000
손미영(4차) 4,320,000
손미원(9차) 1,080,000
송옥순(정진희권선) 1,050,000
송주의(9차) 1,080,000
양경윤(5차) 9,800,000
양현정(9차) 1,200,000
연잎밥(수익사업단장) 1,080,000
원유자(4차) 10,800,000
유명숙(최혜경권선) 1,080,000
유옥준(정진희권선) 1,080,000
이미호(이정호) 1,080,000
이숙자(6차) 5,000,000
이순재(8차) 2,160,000
이영미(6차) 10,000,000
이영자(1차) 10,000,000
이영주(7차) 10,800,000
이인자고문 10,800,000
이정호(2차) 10,000,000
이철호(원유자권선) 1,080,000
임순덕(5차) 3,000,000
임주연(정진희권선) 1,050,000
임지영(정진희권선) 1,050,000
정경연고문 10,000,000
정덕스님 8,000,000
정은희(6차) 1,080,000
정진희(3차) 10,000,000
조은수(2차) 10,000,000
조정숙(사무국장)1,080,000
최희영(7차) 1,080,000
형난옥(6차) 10,000,000
호국정법사(최혜경권선) 1,080,000
호국홍불사(최혜경권선) 1,080,000
홍경희(2차) 1,080,000
황규잠(정진희권선) 1,080,000
황외숙(4차) 5,000,000
이유미(궁채) 30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다문화봉사단 / 교정교화센터 / 우바이예찬 / 재소자영치금 / 기타)

계미향 60,000
김선옥 241,000
김영희 200,000
김옥숙 50,000
남동현 110,000
원유자 50,000
윤연숙 60,000
이정호 50,000
전영숙 60,000
정대련 50,000
정덕스님 1,000,000
조정숙 13,500
한림대봉사클럽 300,000
황경자 50,000
황수경 27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와 후원

권승오 180,000
김옥경 180,000
김옥숙 90,000
김의자 30,000
김재란 180,000
김해경 30,000
신형윤 30,000
조윤예 10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김승주 60,000
김연성 60,000
김지영 60,000
김희정 1,500,000
박영숙 90,000
윤정은 30,000
이해미 30,000
전주옥 60,000
조현정 60,000
최선민 10,000
한경숙 30,000
한정미 300,000
홍윤진 30,000
황화성 150,000

○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정회원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 활동 센터 1개 이상 선택의 기회
- 교육과 프로그램 할인(회원활동 6개월 이상)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2

[후원 안내]

○ 불교여성개발원
국민은행
023501-04-031123
예금주 :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국민은행
023501-04-095228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모금계좌
농협
301-0085-6744-91
국민은행
023537-04-003040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불교여성회관)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